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김 목사

# 목차

<b>서론</b>	3
거짓 목사	5
거짓된 목사와 거짓된 교인	9
거짓 목사들과 어리석은 교인들	11
거짓 목사와 참 목사	13
술을 좋아하는 목사	16
돈을 너무 밝히는 목사	19
숫자를 자랑하는 목사님들	28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하는 목사들	30
목사님들이 많아질수록	33
목사님, 제발 분별해서 축복해 주세요!	35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37
요나와 같은 목사, 아밋대와 같은 목사	42
비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받는 목사	44
우리들 가운데 참 목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7
목사의 눈물	52
거울로 삼을 줄 아는 목사	54
주님,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56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59
<b>결론</b>	65

# 서론

우리는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구별하기가 힘든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참 목사이고 누가 거짓 목사인지 구분하기가 마치 벌레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것처럼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진짜 목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짓 목사는 자기 자신 포장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입니다. 또한 그는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교회도 섬기며 또한 교회적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는 세계선교에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교인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교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 사람들도 그를 '좋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 식구들조차도 성실하게 보이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거짓 목사는 온갖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여자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만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여성도까지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의 명예욕은 점점 더 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길 원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서까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짓 목사들에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젠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욕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참 목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진솔한 목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목사,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성실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실한 목사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본이 되지 못하는 외식하는 목사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은 수많은 성도들은 진실한 목사다운 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목사답지 못했으면 ...

저는 이번 기회에 “연애, 결혼, 가정” 책 원고를 준비하다가 “교회, 목사, 그리스도” 책 원고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쓴 글들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합니다”라는 세 부분으로 편집하다가 한 권의 원고로는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 권의 원고로 분리했습니다.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합니다”란 책 원고 준비를 마친 후 이렇게 두 번째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합니다”란 제목으로 원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원고를 이 메일로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원고를 받아 읽으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주님, 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나올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원고를 받아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다운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거짓 목사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사사기 18장 5-6절).**

거짓 목사와 거짓 교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뉴스엔조이를 보니까 몇 가지로 그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자신을 향한 비난과 멸시 핍박을 도저히 못 견뎌 한다는 것 (2) 그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말에만 좋아라한다는 것 (3) 자신의 의와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 (4) 속이 뻔뻔이처럼 좁고 폐쇄적이라는 것 (5) 자기밖에 모르고 잘못의 지적에 회개는커녕 화만 내는 것 여러분, 이 공통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공통점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목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교인은 그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는 샅꾼입니다. 결코 그는 양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요10:13).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12절). 결코 거짓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11절). 오히려 거짓 목사는 자기 배만 채우는데 힘씁니다(겔34: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인들은 그러한 거짓 목사를 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아멘”하면서 그 말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 결과 거짓 목사나 거짓 교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성경 사사기 18장 5-6절을 보면 단 자손의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2절)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레위 청년(3절)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단 자손의 다섯 정탐꾼들이 그 레위 청년에게 청함과 그 레위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그 다섯 정탐꾼들의 청함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5절)는 것이었고 그 레위 제사장의 답변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였습니다(6절).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단 자손의 다섯 정탐꾼들이나 레위 제사장이나 다 별 문제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들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단 자손의 다섯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속해 있는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분명히 단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제비를 뽑아 그들의 분깃(땅)이 지정되었고(수19:40-46) 또한 그들이 그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기도 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삿1:34-36). 그들이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한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지파들 중에 단 지파가 가장 믿음 없는 지파로 드러났습니다(박윤선). 이렇게 가장 믿음이 없는 단 지파의 다섯 정탐꾼들은 믿음이 좋아보이도록 레위 제사장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청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들은 샅꾼 제사장에게 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삿18:5).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참 제사장과 거짓 제사장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이 거짓 제사장이요 샅꾼 제사장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말하였을 때(17:10) 그 레위 청년은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동의했습니다(11절). 이렇게 그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안에 동의한 이유는 그가 미가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18:4). 그래서 그는 미가로 하여금 자기를 고용하게 하였습니다(4절).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고용되었던 그 레위 제사장은 나중에 단 자손의 다섯 정탐꾼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19절)고 말했을 때 그 레위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단 지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20절). 과연 이 레위 청년이 참 제사장이십니까? 샅꾼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샅꾼 제사장에게 단 지파의 다섯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자기들이 가는 길이 험통할는지 자기들에게 알게 하라고 청한 것입니다(5절). 그 때 그 레위 제사장은 그 다섯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6절)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의 집을 떠난 그 다섯 정탐꾼들은 결국 라이스(Laish)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그들이 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9절). 왜 그들이 보기에 라이스는 매우 좋은 땅이었는가 하면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10절). 그 땅은 넓고(10절) 평온하며 또한 안전하여 그 곳에 사는 백성은 염려 없이 거주하는(7절) 평화로운 백성이었습니다(10절). 그 백성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었습니다(27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기에 그 곳에 사는 백성들은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7절).

그러므로 그 다섯 정탐꾼들은 다시금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일어나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8-9절)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짓 교인들이 거짓 목사의 거짓말(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 자손의 그 다섯 정탐꾼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라이스라는 곳을 이르러 그 땅을 보았을 때 미가의 집에 거하고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의 말대로 그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확신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믿음이 없는 단 지파의 그 다섯 명 정탐꾼들은 샅꾼 제사장인 그 레위 청년의 아침의 말을 듣고 길을 갔을 때 라이스에 이르렀다고 확신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스란 땅은 매우 좋은 땅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결국 그 곳에서 단 자손들은 미가가 만든바 새긴 신상(27, 30, 31절), 즉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신앙은 거짓 제사장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제사장의 거짓말도 듣게 하고 믿게 하여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불신앙은 단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단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짓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거짓 교인들이 추종하는 거짓 목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목사들의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짓 교인들을 보면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교인들이나 다들 거짓말에 속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거짓 목사의 거짓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열심을 보이는 열광적인 거짓 교인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교인 탓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짓 목사의 책임이 큼니다. 그 책임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는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싸구려 은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딤후4:3) 아침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 목사는 무책임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거짓 목사는 라이스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는 자기 보기에 매우 좋은 곳,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곳,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평온하며 안전한 곳 그리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는 비록 입술로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로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목사는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결국 거짓 목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인들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들로 인하여 거짓 교인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난 받아 마땅한데 칭찬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화만 내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거짓된 목사와 거짓된 교인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에스겔 13장 22절).**

거짓된 목사는 거짓된 선지자처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out of his own imagination)(겔13:2)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된 선지자처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following his own spirit and has seen nothing) 설교를 합니다(3절). 거짓된 목사는 “우매한”(3절) 목사입니다(The foolish pastor). 그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습니다(4절). 다시 말하면, 거짓된 목사는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박윤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목시)과 거짓된 점괘”(falsehood/a false vision and lying divination)를 말합니다(6, 7, 8, 9절). 거짓된 목사는 거짓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10, 16절). 한 마디로, 그는 거짓 위로의 말을 합니다(박윤선). 결코 거짓된 목사는 참된 선지자처럼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목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데로” 선포하되 자기 마음에는 범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죄의 문제로 인하여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다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모래를 쌓고 거기에 회칠함과 같습니다(10절). 지금 거짓된 목사는 교인들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회칠함 같이 교인들을 멀쩡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사는 교인들의 손을 굳게 하여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22절). 그는 거짓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들을 죄악 된 길에서 돌이켜(repent and return)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목사는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dishheartened)하게 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러한 거짓된 목사 때문에 거짓된 교인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인은 거짓된 목사의 “거짓말을 곧이 듣”습니다(19절). 그는 거짓된 목사가 주일 예배 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10, 16절)고 설교하면 “아멘”을 외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면서 예배당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서 그 받은 싸구려 은혜의 힘(?)으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도 없는 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시험 들어 그 목사를 싫어하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는 그 정도로 마음이 강박해져 있고 자기 의(self-righteousness)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의로운데 그 목사가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니까 자기 마음에 평강을 잃었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 가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거짓된 교인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4:3)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된 교인은 자기가 곧이들은 그 거짓말(겔13:19)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6절). 아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데로(2절) 예언한 “허탄한 것(목시)와 거짓된 점괘”(6, 7, 8, 9절)가 이루어지길 바랄 수 있습니까? “우매한”(3절) 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The foolish layman). 결국 거짓된 교인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목사의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는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아 자기의 손을 굳게 하여(22절) 계속해서 자기의 최악 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자기가 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교인은 지금 기록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거짓된 교인 때문에라도 거짓된 목사가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 거짓 목사들과 어리석은 교인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에스겔 13장 6, 19절).**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 떼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 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겔 36:20, 39:7, 43:8).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13:19).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19절).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2, 17절).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3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입니다(7절). 즉,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10, 16절).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곧이들었습니다(19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곧이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처럼(6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짓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을 기대하기보다 평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듣기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역사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무수한 거짓 목사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짓 목사들은 범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고 ‘축복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거짓 목사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힐링(healing)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목사들입니다(2절).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그 거짓 목사들의 거짓 설교를 무수한 교인들을 곧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그 많은 교인들이 그 거짓 목사들의 허탄한 말에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인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는 그 거짓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한 거짓말 되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어리석은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 거짓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거짓 설교를 곧이들은 어리석은 교인들도 거짓 목사들의 거짓말에 설득을 당하여 같은 기대를 품고 빼돌어진 열정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거짓 목사와 참 목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예레미야 23장 28-29절).**

‘나는 거짓 목사이거나 아니면 참 목사이거나?’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성경 예레미야 23장 28-29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묵상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나는 거짓 목사이거나 아니면 참 목사이거나를 생각해 보면서 참 목사에 대한 교훈을 받아 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몽사(a dream)를 말합니다. 여기서 “몽사”란 “목시”(a vision)(16절)로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16절).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마음으로 말한 몽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헛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16절) 그것은 바로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하나님을 항상 멸시하고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17절)였습니다. 참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습니다(25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였습니다(30절).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혀를 함부로 놀려(31절) “거짓 몽사”(32절)를 예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32절).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26절). 그들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32절) 그릇되게 하였습니다(13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들은[“사마리아 선지자들”(13절)]은 우매하여 바알을 의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13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사”, “묵시”, “거짓 예언”을 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 인도하였습니다(13절). 그러면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은[“예루살렘 선지자들”(14, 15절)] 가증한 일을 행하되 그들은 간음을 행하였습니다(14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했었습니다(10절). 간음을 행하는 선지자들은 행음하는 백성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려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손을 굳게(strengthened) 하였습니다(14절). 한 마디로, 사특한[더러워진, 오염된(polluted)]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더러워졌습니다(15절). 더러움이 더러워진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15절). 그러므로 온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10절) “...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행악합니다. 행악하되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을 행하였습니다(11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32절).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간교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17절)고 말하면서 위로의 설교를 합니다. 거짓 목사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기보다 듣는 자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 줍니다(딤후4:3).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 없습니다(2절). 그들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힘 있게 하여 계속 죄를 범케 합니다(렘23:14).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릇 인도하고 있습니다(13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 목사들 자신들이 그릇된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21절).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악행을 범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서 더러움이 나와서 온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28절).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18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28절). 결코 그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함부로 자신의 혀를 놀리지 않습니다(31절). 참 선지자가 전파하는 말씀은 “불” 같으며 또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29절).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심령들의 강박한 마음을 녹이며 부스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합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성실히 전파하므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22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27절)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합니다(14절).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합니다(32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몽사를 얻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몽사를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였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참 선지자의 삶은 진실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참 목사인지 아니면 몽사를 말하였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목사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와 참 목사가 구분이 되십니까?

## 술을 좋아하는 목사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레위기 10장 9-11절).**

언젠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목사님들 중에 술을 마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보수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분들인데 술을 마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도 유명하다는 교수님들도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나면서 보고 배운 것은 목사는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적어도 술에 대해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전보다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봐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1절)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2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함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둘째 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보다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한 목사가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술에는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술에 취하여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목사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돈에 취하여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물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 돈에 취하여 돈을 섬기며 돈을 위하여 샅꾼이 된 목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돈에 취한 목사’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고 또 없어야 합니다. 물론 돈에 취한 목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에 취한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적 타락을 범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지금 돈, 여자, 명예욕에 취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는 이 속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속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술뿐만 아니라 돈이나 여자나 명예에 취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롬12:2).

**둘째 이유는,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입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가르치는 자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분별력을 잃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에 취한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적 타락하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성적 유혹을 뿌리치라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욕심과 탐심에 빠진 목사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고 제대로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입술로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악 된 삶을 숨기면서도 표면적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술과 같은 것들에 취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까이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이요 방망이와 같은 말씀에 취해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있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인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속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돈을 너무 밝히는 목사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민수기 22장 18-19절).**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돈 얘기를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더 이상 참다못하여 아예 다른 교회로 옮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지 지금 교회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보다 돈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교회가 왔을까요? 그 원인은 돈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들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들은 두 주인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목사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마6:24).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입술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라고 힘차게 설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은 나의 힘이다’라고 믿고 돈을 축적하기에 바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은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마9:14), 안식일인 주일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고(마12:2, 막2:24), 심일조도 철저히 드리며(마23:23),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막2:16). 진짜 겉으로는 아무 부정도 없어 보이고(막7:5) 깨끗하게

보입니다(마23:25).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눅11:39). 지금 우리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사56:11). 지금 우리는 우리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사들이 되었습니다(11절). 작은 교회 목사부터 큰 교회 목사들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렘6:13). 그 탐욕으로 인하여 목사들은 다 미련하게 되었습니다(전7:7). 지금 돈이 우리의 명철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7절). 그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방탕의 생활도 가족 및 교회 식구들 몰래하고 있습니다(마23:25). 지금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고전5:11, 엡5:3). 이렇게 우리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벧후2:14).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14절). 그러기에 지금 탐욕에 이끌림을 받는 목사들은 교회 강단에 서서 돈을 너무 지나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돈을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거짓된 마음과 입술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삿꾼 목사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어쩌면 사모님들은 적어도 짐작을 할 수 있을지도? 웬지 사모님들조차도 모를 듯). 그러니 이제 성도님들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일 뿐만 아니라 누가 참 목사이고 거짓 목사인지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질문까지 던지면서 저를 혼동되게 만든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22장 18-19절 문맥에 나오는 “발람”이란 사람입니다.

처음에 발람이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발람이 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민22:8),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13절),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34절),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 이다”(38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23: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26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이 어기고 선악 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24:13). 이 말씀들만 읽다보면 이 발람이란 사람은 참 선지자인가보다 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발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the fee for divination - 점볼 때 내야 할 수수료?)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22:7), “그(발람)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22절), “… 보라 내(여호와와 사자) 앞에서 네(발람의)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32절), “야곰을 해할 점술(sorcery)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divination)이 없도다 …”(23:23),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sorcery)을 쓰지 아니하고 …”(24:1).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발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기 보다 점술을 보는 술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13:22).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술사가 모압 왕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말하는지 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발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다가 성경 민수기 22-24장외에 다른 곳에 적혀 있는 발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와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민31:16),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신23:4),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who practiced divination)도 칼날로 죽였더라”(수13:2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느13:2),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느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who loved the wages of wickedness)”(벧후2:15),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they have rushed for profit into Balaam's error)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유1:11),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to entice the Israelites to sin) 우상(idols)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sexual immorality)하게 하였느니라”(계2:14).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18-19절에 나오는 발람이란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점술가였습니다(수13:22).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신23:4, 느13:2). 그가 뇌물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벧후2:15). 그 결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가 놓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브올(Peor)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녀들이 섬기던 바알브올(브올에서 섬긴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민25:1-3).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습니다(호9:10).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중에 염병이 돌므로[“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시106:29)]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나 되었습니다(민25:1-9).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살피며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발람이란 인물인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18-19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문은,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신하들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7절)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15절) 발람에게 보내어 “아무것도 거리까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이스라엘)을 저주하라”(16-17절)고 말을 전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발람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절). 분명히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말했는데(17절) 그 말을 들은 발람은 “은금”을 말하면서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자기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고 말한 것입니다(18절). 이 말씀을 읽다가 든 의문은 ‘아니 발락은 발람에게 은금 얘기를 한 것 같지 않고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왜 발람은

“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분명히 발락 왕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를 “존귀”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11절) 발람은 발락 “집에 가득한 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13절). 그러면서 발람은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때에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13절) 왠지 저는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람은 발락에게 높임을 받고 크게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은금을 더 원했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생각을 확인에 준 성경 구절은 바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참고: 유1:11).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발람은 “불의의” 은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밝히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둘째 의문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저는 이 발람의 말을 읽고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발락 왕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7절) 발람은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8절)고 말한 후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12절)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발람은 또 다시 19절에 와서 발락 왕이 두 번째로 보낸 신하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말한 후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한 것인지 좀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12절)에 이미 명하셨는데 왜 발람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하신 말씀(12절)외에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일까요?(19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발람은 18절 하반절에서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해놓고 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12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더 하실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은금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충분히 발락의 은금을 탐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외에 혹시나 추가로 ‘그들과 함께 가라’(민22:20, 35)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12절)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중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20절)고 말씀하셨을까

입니다[나중에는 “여호와와 사자”(22절)도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35절)고 명하심].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까(21절) 진노하셨습니다(22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13절 하반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발람의 말 중에 특히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허락”이란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directive will)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permissive will)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기고 삼손이 구별되지 않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삼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고 자기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가 믿는 자와 결혼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실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지 않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참고: 롬8:28).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민수기 22장 말씀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민22: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고 불의의 샅인 발락 왕의 은금을 탐하여 그 신하들과 함께 가길 원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본(19절) 발람에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사 그로 하여금 발락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것(20, 35절)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참고: 롬1:24, 28 - “내버려 두사”, 26절 -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좁은 길”에 서서 발람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민22:22-24). 흥미로운 점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와 사자를 본 “나귀”는 자기 주인인 발람을 살려보려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 발으로 들어”가므로(23절) 발람에게 두 번이나 “채찍질”을 당하고(23, 25절) 한번 “지팡이”로 맞았는데(27절)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했던 발람은 오히려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28절) 자기에게 충실했던(30절) 자기 나귀에게 자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만일 자시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29절)고 말한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거역”은 자기가 하고 있었으면서 나귀에게 거역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으로 들어가는 자가 나귀에게 노하여 지팡이로 때리고 심지어 자기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나귀)를 죽였으리라”고 말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이러한 웃지 못 할 우스운 장면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고 옥한흠 목사님은 곤충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기가 무척 힘들듯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하신 말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너무나 흡사한 모조품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명품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 그만큼 모조품이 진짜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목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누가 참 목사고 누가 거짓 목사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진짜 목사 같이 보이는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영혼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설교도 좋고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진짜 복음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가 거짓 목사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바”는 행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였지만(3절)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맞는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첨부한 유전(장로들의 전통)까지 듣고 행하라 고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던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모인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행하되 말만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은 본받지 말아야 할 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목사들은 주중에 가정에서 올바른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라(빌1:27)는 말씀을 여기면서 까지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물론 지금은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이지만). 심지어 우리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눅6:14)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돈을 밝히지 않은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줄을 알고 돈을 탐내면서도(딤후 6:10)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의의 삯을 사랑했던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과 같은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골3:5).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돈을 사랑하므로 우상 숭배하는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빌2:15)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않고(렘14:10) 걸어가는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마6:24)는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돈을 너무 밝히는 우리 목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너무 밝히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였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도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민24:10)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22:12-13, 20, 35)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사랑하였던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24:11).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22:12).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신33:29). 그 이유는 “여호와와 구원을 너(여러분) 같이 얻는 백성(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29절).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여러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너무 밝히는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복을 받은 자들인 여러분 성도님들을 오늘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숫자를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사기 7장 2, 4절 상반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매 주일 마다 꼭 세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목사님들이 교인 숫자가 헌금 액수에 민감한 것일까요? 제 기억으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매 주일 주보에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숫자들을 교회 주보에 집어넣은 이유는 한, 두 분 성도님들의 제안이 있었고 저 또한 그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이란 교인들이 예배 참석한 교인들과 헌금한 액수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극을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제 기억으로는 헌금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음).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일 주보에 예배 참석한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 숫자를 적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매 주일 주보를 만들면서 교인 숫자를 주보에 적어 넣으면서 교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는 우리 교회 세 사역인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그리고 히스패닉 사역의 교인 숫자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한 숫자가 100명이 넘으면 왠지 기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100명 미만이라고 낙심하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 제목인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양육하여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숫자를 세는 가운데 각 사역 당 한 100명씩만 모여도 참 좋겠다는 바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 100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100명의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들이 되는 제 꿈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인 숫자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도 괜찮은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사시기 7장 2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반복하시는 말씀이란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인 3만 2천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3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 이제 남은 자는 일 만 명이었습니다(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만 명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도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기드온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3만 2천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2절).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자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더욱더 마음에 교만함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과 교인 숫자를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를 자랑하다보면 우리는 은근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 숫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 자꾸만 하나님 보다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주위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최악 된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하는 목사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예레미야 23장 30절).**

언젠가 산타 모니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두 종이컵에 있는 콜라와 펩시 중 하나를 마셔보고 마신 것이 콜라인지 펩시인지 알아 맞춰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도해 본 이유는 제가 콜라를 하루에 한 깡통씩 마실 정도로 많이 마시고 있었기에 저는 콜라의 맛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저는 펩시가 든 컵을 들어 마신 후 “coke”(콜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하. 지금도 그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함부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저나 여러분에게 물이 든 컵하고 콜라를 든 컵을 보여주고 어느 것이 콜라인지 알아 맞춰보라고 말하였으면 우리는 그것을 안마셔보아도 우리 눈으로 보고 어느 것이 콜라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콜라와 펩시는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추억이 이렇게 다시금 생각나게 된 원인은 오늘 성경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묵상하면서 박윤선 박사님의 예레미야 주석을 읽다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이란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각기 자기의 친구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자기 친구(역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히 얻어 가지고, 자기의 거짓된 사상과 섞어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간교하게도 자기의 거짓된 사상을 진리와 같이 보이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박윤선).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26절).

이 얼마나 간교한 사단의 역사입니까? 진리와 같이 보이도록 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된 사상을 섞는 것, 우리로서는 충분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와 같이 보이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그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섞습니다. 그는 진리에 거짓을 섞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섞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섞인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거짓이 섞인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여(32절) 우리로 하여금 혼합주의적인 신앙(종교?)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은 참으로 위험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믿음, 즉 섞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마6:24).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 사단의 미혹에 교회 지도자라는 우리 목사님들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은 어찌되겠습니까? 만일 목사님들이 섞인 믿음을 가지고 목양하고 있다면 교회 양떼들은 어찌되겠습니까? 만일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거짓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어찌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종교 지도자란 선지자들이 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된 사상을 섞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하였습니다(렘23:17). 또한 그들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17절). 아니 어떻게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데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4:1)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어떻게 평안하며 어떻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된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는(14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이 그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15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사악이 거짓 목사들에게로 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사상을 섞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우리 목사들이 섞인 복음 혹은

“다른 복음”(갈1:7)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우리 목사들이 섞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교인들에게도 섞인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우리 목사들이 그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렘23:10), ‘너희가 다 사악하고 너희 집과 교회에서도 너희의 악을 내가 발견하였노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2절).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렘3:12, 14, 22, 4:1, 25:5, 31:21)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그릇되게 하되(23:13)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범하도록 그들의 손을 강하게(14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32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32절).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섞인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되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28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 같으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기 때문입니다(29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불과 같으며 방망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녹아지며 부서지는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이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 목사님들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호세아 4장 7절).**

과연 목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요? 과연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요? 과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요? 입술로는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니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교회나, 성도나, 목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님들, 어떠한 목사님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quantity)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quality)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4장7절을 보면 성경은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사장들이기에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로 많이 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죄를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 무지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쫓기를 그쳤습니다(10절). 그 이유는 그들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12절). 더 나아가서 그 무지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된 본능으로 하여금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8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 더욱 완강하게 만들었습니다(16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로 인하여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14절).

이 말씀을 오늘 말로 한다면, 목사님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목사님들입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며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즉, 무지한 목사님들의 마음은 성도님들의 죄악에 돕니다(8절). 그러니 목사님들도 범죄하고 성도님들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9절). 결 하나님 쫓기를 그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므로 말미암아(11절) 마음을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케하여(16절) “행음”(14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므로(17절)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명령을 좃기를 좋아”합니다(5:11). 그들은 “음란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말미암아(4:4)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된 행위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4절).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목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목사인 제 자신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지식을 버린 목사님들이 많아질수록 죄를 범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벌하지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4:14).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목사님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축복이지만(2:14-15)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에게도 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라 생각합니다. 더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목사님들을 내어 버려두신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호세아 5장15절에서 6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우리 목사님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6: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가는데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 목사님, 제발 분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창세기 27장 23절).**

과연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목사님, 제발 분별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나 성도님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있을까요?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축복(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엡1:3)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every physical blessing) 받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령한 사람(the spiritual men)이 되지 못하고 점점 더 육에 속한 사람들(the man without the Spirit)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고전2:14).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14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마6:33). 그 이유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33절). 오히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31절). 이것은 다 이방인들(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일 진데(32절)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참고: 고전2:15).

오늘 성경 창세기2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1절)이 죽기 전에 마음껏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지만(4절)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눈을 속인(12절) 야곱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23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에(말1:2-3; 롬9:13) 주권 속에서 선택하신 야곱(참고: 롬 9:11ff.)을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빌1:17)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지만 결코 그는 복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하는 것을 용납한 것은 아니었음(2:3)]. 만일 이삭이 나이가 많지 않아 눈도 잘 보았다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려 했겠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분명히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을 책망하기보다(계3:19, 참고: 잠27:5)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축복 기도할 때가 아닌데, 오히려 분명히 지금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인데 말입니다. 지금 영안이 어두운 우리 목사님들이 영안이 어두운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마15:14). 그 결과 둘이 다 구렁이에 빠졌습니다(14절). 이미 지금 맹인인 우리 목사님들과 맹인인 성도님들이 구렁이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에게 물질의 축복 기도를 사모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보다 사랑의 면책 메시지를 사모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찢림 속에서 회개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발 분별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외쳐 보지 않으실래요? 아니,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발 분별해서 축복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사랑으로 저를 면책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보지 않으실래요?

#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사무엘하 24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 중 하나는 바로 교인 숫자를 계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인 숫자를 계수하게 하되 그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헛된 자부심과 교만함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더욱더 교인 숫자를 늘리기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이런 저런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교회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회사 같다는 말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요하시는 교회 사역, 이제 우리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리 고민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교인 숫자 증가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담당하고 있는 교구나 부서에 교인 숫자 증가를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인 숫자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는 설교하면서도 교인 숫자를 부풀려 은근히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입니까(행2:47)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양도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incited)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incited)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여 죄를 범케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permissive will of God)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사(삼하24:1) 그들을 대적하셨기(대상21:1)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시사 다윗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대적하신 이유는 그들이 일시 동안 압살롬의 반역을 따랐고(삼하 15:12) 또한 세바의 반란을 지지하였기(20:1-2) 때문입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다윗 왕의 실수함을 그대로 방임하셨던 것입니다(박윤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칠만 명이나 되었습니다(24:15).

한국에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나 된다(한국 인구의 4분의 1)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왠지 많이 부풀려진 교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읽은 기독교 신문 기사가 생각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 50개중 약 24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대형교회 숫자와 교인 숫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라고 외치면서 교인 숫자를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더하시는 것(add)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을 곱하는 것인지(multiply)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 현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여 이 교인 숫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게 만드는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에게 진노하시사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노하고 계시며 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반역(betray)하며 반란(rebel)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며(찬송가 412장) 또한 우리가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주님께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자책(conscience-stricken: 양심에 찢린바 되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24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게 여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련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땅의 칠년 기근이나 그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에 삼일 동안 온역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13절). 그 결과 다윗은 그 130만(9절) (참고: 역대상 21장 5절에서는 157만이라고 적혀 있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7만 명을 잃습니다(15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상 우리가 교인을 많이 잃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분들이 떠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교인 숫자에 많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삽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은 언제 품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영혼”이 아닌 “많은 영혼”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고, 크고, 넓고 높게 ... 자꾸만 우리 마음의 욕심의 영역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값없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24장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우리는 다윗처럼 결코 값을 치루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준비되지도 않은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대상21:24)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상당한 값(the full price)을 치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시는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25절).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이상 교인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욕심”대로 목회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내리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양 우리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 우리들은 이리 사단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쇼(show)나 회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entertainment)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 되지 않은 마음으로 전파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목회자에게 진실 된 성품을 찾아 해매는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가려운 귀를(딤후4:3) 즐겁게 해주는 바르지 못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사욕을 좇을 목사님들을 많이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참고: 딤후4:3).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선포한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씨름(마치 야곱이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하는 진실 된 삶을 추구하는 목회자를 스승으로 두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자신의 미련한 죄를 진실 되게 자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양 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의 대가(cost of worship)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르고자 결단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 요나와 같은 목사, 아밋대와 같은 목사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요나 1장 1절).**

“요나”(Jonah)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dove),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senseless)입니다.

요나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방향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2절)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3절).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자기 뜻(멋)대로 행합니다.

**요나의 아버지인 “아밋대”(Amitai)란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나의 성실’(my truth, my faithfulness)입니다.**

성경은 “아밋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요나의 부친이요 드헤벨 사람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왕하 14:25, 욘1:1).

그렇지만 성경 요나서를 묵상하다보면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요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참 “아밋대”(나의 진리, 나의 성실)가 되심을 엿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큰 성읍”(2절)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옴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4절)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뜻)에 순종케 하시고자 자연까지 움직이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진바 된 요나(15절)를 위하여  
“큰 물고기”(17절)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사(3:1-2)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1:2)고 명하시면  
‘일어나’ ‘가서’(3:3) ‘외칩니다(4절).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냅니다.

## 비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목사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요나 1장 13절).**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주신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어내려 갑니다.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요나로 하여금 불신자들인 이방인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말미암아 요나 또한 그의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요나로 하여금 불신자들인 이방인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요나1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사공들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방인 사공들이 큰 폭풍을 만난 줄 알았기에 그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고 했지만 그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오히려 그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13절). 이것이 왜 은혜인가 하면 사공들의 입장에서 요나로 인하여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기에 마땅히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함께 있는 모든 비신자들이 고생을 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면 그 비신자들은 그 목사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너 때문에 …”라고 욕하면서(?) 그 목사를 바다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비신자들이 그 목사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신자 사공들이 주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좀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종인 요나가 비신자 사공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상적이 않은 불순종하는 요나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나로 하여금 비신자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요나는 자기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 대답은 “예”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후(요나 2장) 구원을 받아(9-10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3:1) 니느웨로 가서(3절) 그 성에 들어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것을 보면(4절)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 요나는 자기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자(3:10)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4:1)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이다”(2-3절).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종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심히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함당하지 않은 요나의 성냄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하는 종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비신자 사공들을 통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마음으로 심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인 주님의 종이니까?

왠지 저는 이 요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주위에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제 전도 대상자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갚을 길이 없기에 저는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사랑하는 비신자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종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종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들 가운데 참 목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에스겔 2장 5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명품인지 어느 게 가짜 명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조품이 많고 진짜처럼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것은 명품이 돈이나 물건들뿐만 아닌 듯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고 옥한흠 목사님은 곤충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기가 무척 힘들듯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너무나 흡사한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누가 참 목사고 누가 거짓 목사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하도 거짓 목사들이 많은 세상이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목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대언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누가 참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세상 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좇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그 유다 사람들은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가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백성들은 그 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렘11:10, 13:10).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6:19).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겔5:7). 오히려 그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11절). 그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6:9).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2:3).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3절). 그리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자들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4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가 있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참 목사가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참 목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준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목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 에스겔2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2:5, 7; 3:11).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을 알면서도(3:7)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10절). 그런 말씀을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재앙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싫어해서 그 말씀에 자신들의 등을 돌렸습니다(23:25). 그러한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탄식과 슬픔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결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신4:2; 12:32).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실히 전합니다(렘 23:28). 이러한 참 목사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딤후2:3).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니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 목사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참 목사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비록 그 목사님의 인품에 흠이 보일지라도 그 분의 설교가 내 욕심의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하고 외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기보다 변질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위선자라 할지라도 그 분이 전하는 말씀 내용이 성경적이요 바른 교훈(딤후2:3)이라면 우리는 그 목사님의 행위는 본받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 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마23:3).

### **둘째로, 참 목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스겔 2장 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3:10) 그 재앙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11, 27절) 그들에게 전하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셨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굳게 하되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8-9절).

참 목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마10:28). 오히려 그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28절). 이렇게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그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구원하며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실 것을(렘42:11) 믿기 때문입니다. 즉, 참 목사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신7:21)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시112:7)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56:11)라고 말합니다. 참 목사는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애3:57)을 들려주셨기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막5:36)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 목사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목사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 **셋째로, 참 목사는 패역한 사람들 같이 패역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스겔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 같이 패역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은 죄악 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자신들의 길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였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참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고전4:2) 그는 죽도록 충성합니다(계2:10).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합니다(렘42:6). 순종하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받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히5:8). 그리고 그는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눅22:42). 참 목사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빌2:8). 이러한 참 목사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롬12:2). 그 와중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최악 된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자신들의 길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최악 된 현상은 우리 목사들이 패역하여 우리 자신들의 최악 된 길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은 목사가 다른 목사(들) 때문에 속상해 하고 슬퍼합니다. 같은 동역 자들끼리도 서로 실망해 합니다. 그리고 서로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 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자꾸만 미디어를 통하여 소수의 목회자들의 범죄가 속히 그리고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 소식을 접한 후 부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은 그 목사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하는 목사보다 가려운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보다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께 불충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추구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참 목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또한 패역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참 목사가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 목사의 눈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예레미야 8장 18, 21절; 9장 1절).**

목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프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 슬프기에 목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에게 목양토록 맡기신 한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었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불쌍한 양을 볼 때에 목사는 근심 속에서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징벌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아서라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므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시사 춤을 추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는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립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8장, 18, 21절과 9장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근심과 상함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이 당할 환난을 내어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져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도 없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장차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환난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유다 백성의 불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버지가 슬퍼합니까? 왜 그가 눈물을 흘립니까? 잘못된 자녀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였을 때 아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그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근심과 상함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이 장차 받을 환난을 생각할 때 마음의 근심과 상함과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보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므로 회개치 아니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9:1).

우리 목사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다 더 통곡하며 슬피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대언하지 아니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죄,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 탐심과 욕심 속에서 목회하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 한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삶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죄, ..., 목이 곧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우리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 그러므로 회개치 못하는 죄, 그리고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이 메마른 죄, 이러한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 목사들은 슬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거울로 삼을 줄 아는 목사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 11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 봐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은 평신도들보다 더 자주 거울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더 자주 거울을 들여다 보되 목사들은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고 다윗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는 왕국에서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며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봐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평신도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고 넓게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가 범한 과거의 죄들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징계를 우리는 현재 삶 속에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범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 맞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때 맞은 때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은 없을지라도 그 때 받은 징계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 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그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과거 구약 시대 (출애굽) 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5절) 우상 숭배하고(7절, 출32:6) 간음하며(8절, 민25:1-9), 주님을 시험하고(9절, 민21:4-6) 또한 원망하는(10절, 민 14, 16장)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사례를 들면서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합시다'(고전10:6),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합시다'(11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이 저희에게 당한 일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기록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11절). 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경계하므로 말미암아 과거 출애굽 당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6절).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겨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거할 때 우리에게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징계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받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거울로 삼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가 선졸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12절).

## 주님,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역대하 18장 12-13절).**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이라도 위로의 설교,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어느 한 성도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안전한 설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은 그 "안전한 설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전한 설교는 "듣는 내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설교, 내 속에서 그 어떤 고뇌와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목사님은 그 어떤 영혼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설교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교, 즉 "위험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분노가 극에 달해 그를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의 말씀에 인생 전체가 변화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역대하 18장 12-13절 문맥을 보면 유대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가기 전에(1-3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청하여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자고 청합니다(4절). 그 때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물어봅니다(5절). 그 때 그 400명 선지자들은 그 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5절). 그리고 이 400명 선지자들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러 진멸하리라 하셨다”(10절)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때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11절)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들 “하나 같이 왕에게 좋게 말”한 것입니다(12절). 그 때 유대 왕 여호사밧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6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자기에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였습니다(7절). 어느 누가 자기에게 항상 나쁜 일로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싶었습니다(7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8절). 그 명을 받은 그 내시는 미가야에게 가서 말하기를 ‘모든 400명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좋은 말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12절). 이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유혹입니까? 만일 미가야 선지자가 그 내시의 말을 듣고 다른 400명 선지자들처럼 하나 같이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였으면 그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26절). 만일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 딱 한 번 거짓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합 왕에게 좋게 말하였으면 그는 옥에 갇힐 필요도 없었습니다(26절).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에게 빵도 먹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요(23절) 또한 다른 400명 선지자들도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신 것(22절)을 말하였습니다. 그 재앙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사(22절) 그들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좋게 말하므로 결국 “아합을 꺾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9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13절). 과연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28절) 아람 왕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습니다(34절).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합 왕이 듣기에 좋게 말한 400명 선지자들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였던(7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13절)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대로 행한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입니까?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이라도 위로의 설교,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눅20:21)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를 위로할 것이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우리 듣는 자들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눅8:15). 주님께서 우리를 미가야 선지자 같은 목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찌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에스겔 44장 15절).**

먼저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에스겔 44장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죄악은 그릇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 된 길에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릇행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따라 그릇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희한한 현상 중 하나는 목사가 그릇행하는 성도들을 좇아 그릇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고 누가 좇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목사라면 교회라는 조직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건만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를 인도하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현상은 특히 성도들이 그릇행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릇 행하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릇된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목사 또한 그 그릇된 물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목사가 지도자로서 지도(lead)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아담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와를 지도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도 그릇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인 목사는 좇는 성도들을 지도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릇행하여 교회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에 그릇행하는 성도들의 물결에 휩쓸려 자기도 그릇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에스겔 44장 11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비록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처럼 그릇행하여 그 우상을 좇아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지만(10, 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11, 14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담당”하게(10, 12절)하시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 전의 영광스러운 직위에서는 떨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전(죄를 범하기 전) 직분보다 낮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릇행하여 하나님의 멀리 떠난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을 빼앗기고, 다만 성전에서 수직하는 일, “희생을 잡”는 일 같은 것을 맡게 된 것입니다(11, 14절)(박윤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희한한 현상은 우리 목사들이 칠계의 죄(간음죄)를 범하고도 계속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여성도(들)과 간음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중 바람을 피우는 그릇된 풍토가 목사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게 우리 목사들 사이에 번지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치매의 병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적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겸손과 감사와 힘(능력)이 없는 목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 에스겔 44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여야 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그릇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7절). 레위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므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습니다(8절). 그러나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이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한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는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분도 함부로 주고 또한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며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인데 지금 우리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그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이 “목사”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목사들이 목사의 직분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도 목사란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선지자들처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목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그릇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지라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목사들이 분명히 이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 에스겔 44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성경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들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하나님께) 드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에스겔 44장 11절을 보면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하나님)를 멀리 떠”난 레위 사람들(10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들되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충실히 지킨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1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수종드는데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특권입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은 현상 중 하나는 목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성도들에게 너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수종들어야 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먼저 교회를 수종들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중심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수종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 에스겔 44장 2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다들 그릇행하여 자신을 떠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자기 자신들조차도 거룩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그릇행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죄악 된 현상 중 하나는 담이 무너져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 된 물결 중 하나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외에 교회 안에 넘치는 죄악 된 물결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순수한 신앙(믿음)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뉴에이지 사상, 인본주의 사랑 등등 이것저것 다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속화 되어가는 목사들은 더욱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적어도 표면적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세속화 되어가고 있기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있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교인들을 배출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거룩한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속된 것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된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삶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 새벽기도회 때 에스겔 44장 9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금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이 말씀을 15절 중심으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1) 먼저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릇행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목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여, 이러한 목사로 세워주소서!



## 결론

거짓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거짓 목사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자기의 거짓된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진리에 거짓을 섞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진리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섞인 믿음의 교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짓 목사는 싸구려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듣고 좇는 거짓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아첨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는 거짓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면책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는 범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 ‘힐링(healing)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목사는 회개하고 있지 않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힘 있게 하여 계속 죄를 범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목사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는 온갖 욕심과 탐심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돈과 여자와 명예에 취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거짓 목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자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 크기 및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짓 목사,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거짓 목사, 주님 좇기를 그치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짓 목사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지금 참 목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린바 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도 흘립니다. 그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 이유는 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강박한 마음을 녹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선포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교인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가 그리 하는 이유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해주세요.’